

# 19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 25~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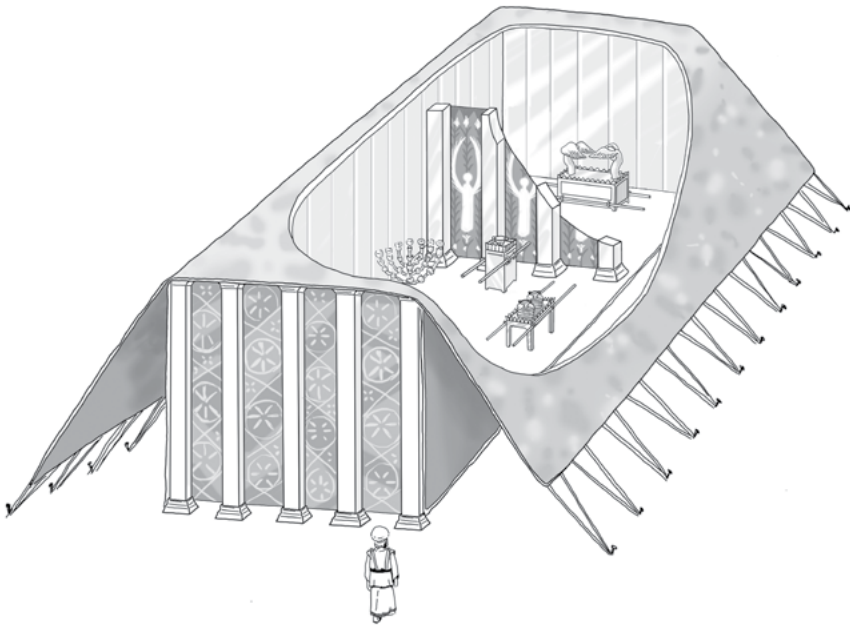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은혜찬송 166장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오늘 배울



1.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임을 압니다.
2. 성막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압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와  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와 사면을 금으로 싣  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히 9:1~5)



## 을 이해하기

황금으로 가득한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집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한 집입니다. 집의 기초는 약 3.4톤에 이르는 총 100개의 은반침으로 되어 있고 그 집을 이루는 48개의 널판에는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널판들을 연결하는 고리와 띠에도 역시 금을 입혔습니다.

그 집의 안쪽을 볼까요?

황금등대와 금을 입힌 떡상과 금향단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짜여진 휘장 뒤에는 순금으로 된 속죄소가 있는데 금으로 된 천사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밑에는 안팎이 모두 순금으로 입혀진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실로 이 집은 황금의 집이며 그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밖에서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집의 지붕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칙칙한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는 희생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단과 사람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이 제물을 태우는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집의 뜰은 밝고 흰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마치 그 집 바깥 사람들에게 “거기서 멈추어라!” 혹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쪽에 아주 넓고 아름다운 문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그리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일까요?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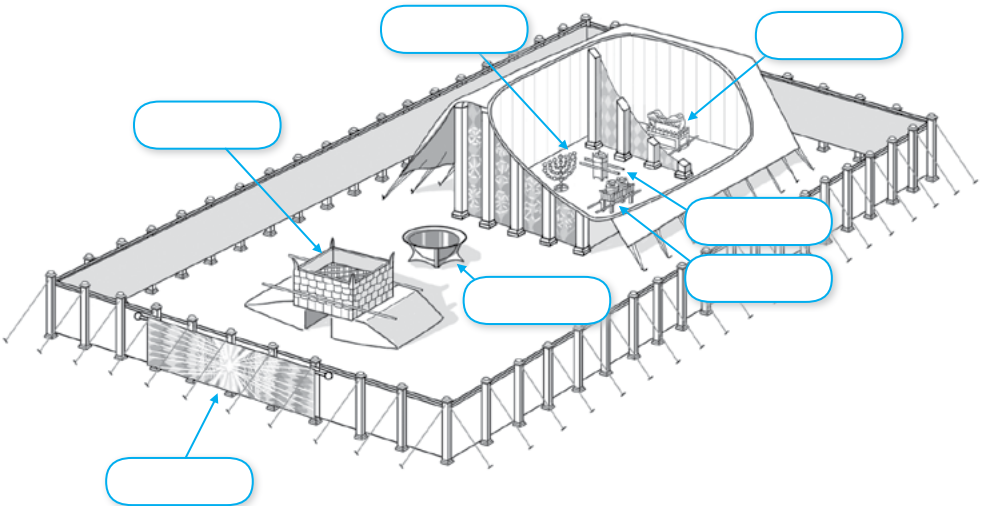
For christ has not entered the holy places made with hands, which are copies of the true, but into heaven itself, now to appear in the presence of God for us (He 9:24)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손으로 만든 성소와 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며 각 기구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2

성막 안의 각 기구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기구들	관련 말씀	사진	특징(모양이나 쓰임새 등)
뜰 문	출 27:16		
번제단	출 27:1~8		
물두멍	출 30:18~21		
떡상(진설병상)	출 25:23~30		
등대	출 25:31~40		
분향단	출 30:1~10		
증거궤(언약궤)와 속죄소	출 25:10~22		

3

성막 안의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 칸을 채워 봅시다.

구분	관련 말씀	예수 그리스도
뜰 문	요 10:7~10, 14:6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번제단	요 12:32, 롬 3:25	
물두멍	요 13:10, 엡 5:26	
떡상(진설병상)	마 26:26, 요 6:35	
등대	요 8:12, 9:5	
분향단	시 141:2, 히 7:25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증거궤(언약궤)와 속죄소	히 9:12, 12:24, 계 12:11	

4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막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적어보고 분반에서 함께 교제해 봅시다(출 25:8, 고후 6:16~18).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출 25:8~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출 25:2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출 25:3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출 27:21

---

---

---

---

---

---

---

---

↓

골 2:16~17

---

---

---

---

---

---

---

---

↓

히 9:11~12

---

---

---

---

---

---

---

---

↓

히 10:1

---

---

---

---

---

---

---

---



##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다

한 유명한 변호사의 부인이 유럽 여행중 마음에 드는 고급 직물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 가격이 2만 5천 달러였는데 그녀가 그것을 사도 좋은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안됨, 가격이 너무 비쌌!”(No, price too high!) 이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직물을 사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왜 자신의 대답을 무시했는가를 물었고 그 날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비싸지 않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까지도...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질문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 겨울 눈보라가 휘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순이 나기 시작하여 어느덧 무성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고 할 때, 죽은 나무는 사과가 맺히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에는 사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신도 수는 늘지 모르나 구원 받는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 3:6~8)**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속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말씀에 있어서도 생명이 없는 교회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온 데 간 데 없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육신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만을 가르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두십시오.